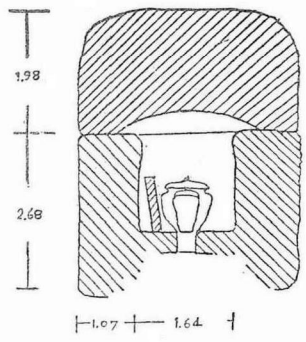


고 하는데 地表上에는 別로 마련된 것이 없었던 것 같다. 다만 이 胎封의 存在를 가 르키는 碑石 하나가 세워져 있었을 뿐인 것 같은데 그 碑石은 若干 떨어진 南쪽 傾斜面에 떨어져 떨어져 있었다. 碑首를 荷葉形으로 만든 簡單한 것인데 그 한쪽 面에 「弘治十八年二月十九日亥時立」이라고만 새겨져 있었다.

圓形石函의 크기는 直徑이 約三尺가량이 되고 높이도 그 程度가 되어 보였다고 한다. 甬口를 열어 보니 그 속에 胎封이 들어가 있었는 데 작은 胎缸은 큰 항아리 속에 들어 있었으며 誌石은 항아리 前面(西南面、이 胎峯의 地形은 西南向할)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文字를 새긴 面이 항아리 쪽으로 향해 하도록 뒤집어서 놓여 있었다는 것이다. 地表에서 이 石函까지의 깊이는 約五尺 넘는 것으로 記憶하고 있었다. 石函 周邊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함으로 特別한 構造 없이 그대로 埋沒한데 不 過한 것 같다.

胎封의 構造에 對하여서는 過去에 調査된 것이 거의 없어서 分明치 不 었다. 그런데 國立博物館에 備置되어 있는 記錄中에 一九三四年 野守健 氏가 調査한 復命書가 남아 있어서 그 正確한 것을 알 수 있었으므로 다 음에 紹介해 두고자 한다.

이 胎封은 平地에 孤立된 자그마한 봉우리 위에 있었는데 역시 그 地 表上에는 아무런 表識이 없었던 것 같다.



「胎峰의 構造는 丘陵上의 最高處에 曠을 파고 地表下約 七尺六寸의 曠 底에 花崗岩으로 만든 直徑 三尺 七寸二分、總高 四尺六寸六分의 圓形 蓋付 石函을 두었으며 그 內 部에는 길이 約二寸의 金箔 二片 과 鍬化된 錢貨 一個를 納藏한 蓋 付 白磁壺를 다시 蓋付 白磁壺에 넣어서 絹布로 싸고 그 옆에 大理 石의 胎誌가 놓여 있었다. 그리 하여 石函의 甬口와 函身의 接合

部에는 石灰를 발라서 堅牢하게 한 후 封土를 被覆하였다」고 한다. 여기에 실은 實測圖는 野守氏가 作成한 原圖를 옮겨 놓은 것인데 元堂 里 胎封에 對하여 筆者가 現地에서 들은 바도 이와 비슷한 誌石을 짐작 케 한다. 이 野守氏 調査의 胎封은 宣祖 第十一王子 慶平君 功의 것인데 그 胎誌石에는

(表面) 皇明萬曆二十八年六月寅時生

王子阿只氏胎

(裏面) 皇明萬曆三十六年一月初七日藏

이라고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 位置는 忠南地方이라고만 말해 두고 그 以上 詳할 수 없는 것은 盜掘의 念慮가 있기 때문이다. 實은 元堂里 胎封의 맞은편 봉우리 위에도 또 하나의 胎封이 있어서 이들은 서로 「앞 태봉」 「뒤태봉」이라고 불리우고 있었는데 그것도 盜掘되어 버렸다고 믿 어지며 近來 몇해 동안에 나온 胎缸들은 모두 그 一派의 손에 의하여 市 中에 나온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之又齋의 海山帖

崔 淳 雨

李朝時代의 畫家들 중에서 韓國의 이라고 부를 수 있는 造形氣質을 길 있게 품기는 作家들을 추려내고 또 그 體系를 정리하는 문제는 아마 韓 國 그림을 연구하는 當面課題중에서 매우 중요한 焦點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이 즈음 이러한 關心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系列로 생각되는 作家들 이 다음다음 注意를 끌게 되었는데 之又齋 鄭滲榮도 그중의 한분이다. 之又齋의 作品들을 보면 그 疎放하면서도 스피리한 筆致, 그리고 늘 渴筆調로 숨가쁘게 그려지는 獨特한 技法과 線調 때문에 中國 그림에서 볼 수 없는 枯淡한 野趣와 수수한 浩氣같은 것이 느껴지기 쉬웠다. 이러한 零圈氣는 오히려 畫面에 한가닥의 生氣를 일깨워서 때로는 近代感覺과

도 통하는 新鮮한 매력을 통겨주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之又齋의 매력은 當時 모티브나 技法 등을 가릴것 없이 北京 畫壇에 대한 盲目的인 追從만 일삼던 事大作家群像들과는 매우 동떨어진 境地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海山帖은 서울 李洪根氏 코렉션에서 調査된 之又齋 稀有의 力作 寫實山水로서 丁巳年(正祖二十一年 一七九七?) 가을에 之又齋가 그의 친구 呂軒(姓名不明)과 더불어 內外 金剛을 두루 유람 하면서 木炭스케치(柳炭略寫)①해은 東海와 金剛十 九景을 그 二年후인 己未年(一七九九?)에 이 畫帖에 비로서 移寫完成한 作品이었다.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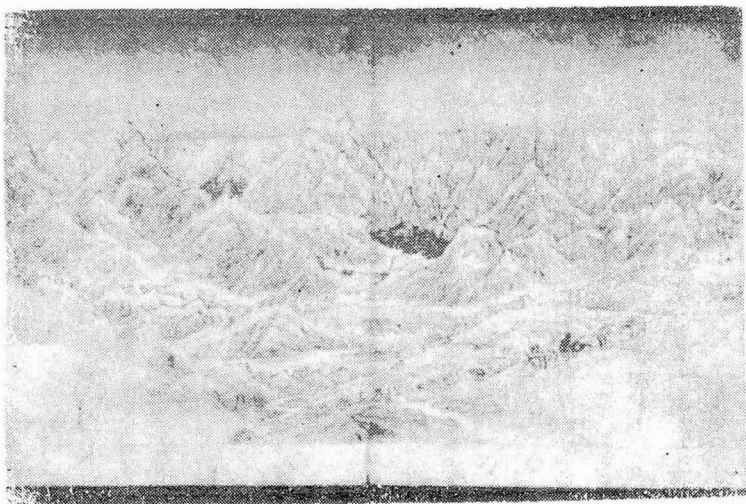
紀行文體의 自題「東遊記」로서 비롯된 이 畫帖은 表紙까지 합해서 二十六張, 맨첫 그림인 雨後金剛眺望을 시작으로 해서 長安寺東北諸峯 등을 그 路程에 따라서 차례로 寫生했고 때로는 三, 四面을 연이은 長長 景이 있는가 하면 單面으로된 獨立風景도 섞이어서 마지막장에 「甕邊遠眺」라는 海景으로 끝을 맺고있다. 첫장의 「雨後金剛眺望」은 金剛山 探訪의 첫날아침 때마침 새벽비가 멎은 상쾌한 가을아침에 바라본 金剛全 景의 잊을 수 없는 感激의인 影像을 그대로 畫筆에 옮겼던 것으로서 이 畫帖中에서도 가장 會心의 作品인듯 하다. 萬二千峯 金剛全貌가 한폭의 그림속에 集約되어 雲海속에 감추어진 連峯들이 平行一直線위로 숨겨져 있고 淡彩된 하늘빛이 마치 바다와 같아서 그 솔직 果敢한 構圖가 嶄新하고도 신선해서 普通이 아닌것을 알 수 있다.

이 之又齋는 世上에 傳하는 作品도 그리 많지않고 또 그의 傳記도 단 지 海東號譜에③ 그의 이름이 傳해 있을뿐임으로 이제까지 그의 在世에 對한 知見은 뚜렷한 것이 없었다. 다만 權域書畫徵의 著者가 어릴잡아서 之又齋를 英祖四十五年生인 申紫霞와 英祖四十八年生인 訥人 曹匡振과의 中間에 두고 있는點이 그의 在世期間에 대한 唯一한 示唆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계산하면 之又齋가 이 海山帖의 艸本을 그린 丁巳年은 正祖二十一年(一七九七), 이 畫帖을 完成한 己未年은 正祖二十三年(一七九九)에 해당하게 된다. 이로써 짐작하면 之又齋가 대략 英祖四十五年(一七六九)과 英祖四十八年(一七七二)사이에 出生해서

그의 나이 三十歲 무렵에 이 海山帖을 그린셈이 된다.

之又齋의 作品으로서 干記가 있는 것으로는 서울 金元全氏의 코렉션에서 조사한 己未作④ 「四時山水屏」이 있는데 이 作品은 寫實風景은 아니지만 之又齋 稀有의 大作으로서 이 海山帖의 筆致와 酷似할뿐더러 自題해서 「做董黃諸大家筆」이라 한것과는 달리 그의 獨自의인 野逸과 疎散의 멋을 마음대로 풍진 작품이었다.

이상으로써 이즈음 세로히 注意를 끄는 之又齋의 作品들의 年代가 대강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이 海山帖같은 寫實風景의 力作이 있는것도 알게 되었다. 그리고 李朝書壇에서 所謂「柳炭畧寫」를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까지口傳되어 왔었지만 之又齋의 自畫自題속에서 이것을 밝혀져 된것은 매우 고무운 발견이라고 해야겠다. 또 現代에도 洋畫 素描는 柳炭을 쓰고 있어서 所謂「木炭畧寫」또는 「木炭畧寫」이라고 부르는 事實로 본다면 之又齋가 「柳炭畧寫」라고 明記한 대목이 대견스러운 것이다. 이 海山帖의 存 在은 이제까지 그 全貌가 알려진 일이 없었고 다만 그 중에 「噴雪潭」單



「雨後金剛眺望61cm×37cm」

幅一面이 朝鮮古蹟圖譜十四卷「二〇六七」面に 掲載되어 있었음을 여기
에 밝히려는다. 朝鮮古蹟圖譜의 編輯에는 當時 無號 李漢福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함으로 아마도 그의 審美眼에 띄크일 된 것이 바로 이 海山帖中
의 噴雪潭이었던 모양이다.

이 畫帖의 卷頭 첫장 空白에는 淡宕 畫芝樵評 漳南寫라고 된 水墨山水
一幅(想像金剛인듯)과 題跋이 있으나 이것은 之又齋의 作品과 直接 關
係가 없고 또 이 海山帖이 그러한 以後의 것임으로 다른 機會에 이것을
밝힐 생각이다.

表紙의 題箋에는 「海山帖」 「英祖時人 河東鄭遂榮 字君芳 畫號 之又齋」
라 있고 白蓮審定의 丸印이 찍혀 있으며 卷頭에는 큰 「學務衙門之印」
이 찍혀있다.

——紙本淡彩 畫帖의 크기는 三二cm x 三七cm의 豎形——

註

- ① 海山帖中 自題跋記에 「餘以柳炭略寫」라는 句節이 보인다.
- ② 同卷頭自題跋文 東遊記末尾에 「餘於丁巳秋與呂軒適始遊此山遊覽之暇
略有模來冊本移寫于此
- ③ 檀城書畫徵所收 海東號譜에 「初名遂大字君芳號之又齋河東人南坡光續
七代孫 善畫有名」이라고 나와있다.
- ④ 題跋에 「略做董黃諸大家筆移寫于之又齋時已未中冬也」라 있다.

長沙南齊博築墓

金 元 龍

中國 湖南省 長沙郊外에는 春秋戰國時代부터 明代에 이르는 各時代의
古墳 四千六百餘基가 있는데 그中에 六朝時代의 것이 四十七基가 된다.
그것을 다시 細分하면 東晉것이 二十七基, 南朝것이 十三基, 그리고 나머

지가 隋墓로 되는데 東晉것은 모두 塋墳
이고 그 構造는 우리 樂浪古墳과 같은 複
室墓와 華南에서 盛行하는 長方形單室墓
式의 두가지가 있고 南朝, 隋代의 墓는
塋墳과 土壙墓의 둘로 나누어진다. ① 그
런데 南朝의 塋墳은 우리 公州塋墳과 構
造上 酷似한 것이 있어 그中 紀年銘塋을
가진 南齊時代의 一墓를 紹介하여 百濟
魂宣傳과 그 自尊을 平生事業으로 하며
이제 回甲을 맞이하시는 百濟後人 洪思俊
先生에게 外來文化를 받아드리는 데 서슴
치 않았던 百濟魂의 一端을 보여드리며
같이 慶賀하러하는 바이다.

이 南齊墓는 北向한 羨道墳으로서 長
方形의 玄室의 長 四·七四m, 前後幅
二·一八m, 中央幅 二·三五m 羨道長
二·一六m 前後幅 一·三六m, 中央幅
一·四八m로서 平面全形은 卍形이 되는데 玄室이나 羨道는 長壁이 모
두 中央에서 若干外彎하고 있는것이 特色이며 이것은 樂浪塋墳에서나
우리 宋山里古墳에서도 보는 바로서 土壓에 對한 抵抗力을 增加하기 위
한 것이다. 또 前後 短壁은 垂直으로 되어 있으나 左右 兩長壁은 天井部
가 汽車「탄」처럼 穹窿形이며 平面 斷面이 우리 公州 宋山里第六號墳
과 꼭 같다.

그리고 所用의 塋은 長 三三·一三六cm, 幅 一六一·一八cm, 厚 〇·五—〇·
六cm의 灰青色塋이며 表面에는 蓮花文과 唐草文의 두가지가 陽刻으로 나
타나 있다. 그리고 그 中에는 「齊永元元年己卯歲劉氏墓」라는 陽文銘文
을 가진 것도 있어 이것이 正確히 四九九年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으

